

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B형 정답

1	㉔	2	㉕	3	㉖	4	㉗	5	㉘
6	㉙	7	㉚	8	㉛	9	㉜	10	㉝
11	㉞	12	㉟	13	㊱	14	㊲	15	㊳
16	㊴	17	㊵	18	㊶	19	㊷	20	㊸
21	㊹	22	㊺	23	㊻	24	㊼	25	㊽
26	㊾	27	㊿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해설

1. [출제의도] 글감에서 연상할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번 문항 해설 참고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A형 2번 문항 해설 참고

3.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A형 3번 문항 해설 참고

4.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에서 구체적 이유는 가족모임이고, ‘그 때 가족 모임이 있나봐, 할머니 댁에서’, ‘다음엔 꼭 갈 게, 동아리 답사.’에는 도치법이, ‘정말 미안해’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므로 정답이다.

[오답풀이] ㉑은 자신의 감정 표현과 도치법만 ㉓과 ㉔는 구체적 이유와 도치법만 ㉕는 자신의 감정만 드러나 있다.

5. [출제의도] 초고를 적절하게 퇴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5번 문항 해설 참고

6. [출제의도] 언어의 자질을 통해 어휘의 의미 자질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6번 문항 해설 참고

7. [출제의도] 연결 어미의 제약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ㄱ을 통해 ‘-느라고’라는 연결 어미가 과거 시제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ㄴ을 통해 ‘-거든’이 사용되면 뒤 절에 평서형 종결어미가 오는 것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ㄷ을 통해 ‘-고자’가 사용되면 뒤 절에 명령형 종결어미가 오는 것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ㄹ과 ㅁ을 비교해 보면 ‘-려고’를 사용할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든’과 ‘-고자’를 사용할 때, 뒤 절의 서술어에 추측의 의미가 더해지는지 여부는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 [8~10] (언어) 송철의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필수적인 모음탈락에 의해 만들어진 어형은 준말로 인식되지 않는다. 필수적인 모음탈락과 수의적인 모음탈락 중 수의적인 모음탈락만이 준말 형성에 관여한다.

[오답풀이] ㉔ 어떤 두 모음이 결합하여 그 두 모음과는 다른 제 3의 모음이 될 때 모음축약이 이루어진다. ㉓ 필수적인 모음탈락과 수의적인 모음탈락 중 수의적인 모음탈락만이 준말 형성에 관여하며 줄어든 음절에 대한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㉔ ‘짜입새→짹새’, ‘사나이→사내’는 체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이고 ‘쏘이다→쫄다’, ‘누이다→뉘다’는 용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㉕ ‘서투르다→서툴다’, ‘가지다→갖다’와 같은 준말 형성 과정은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음탈락은 음절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어떤 어형이 준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본말이 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모음탈락이 이루어지면 그 본말은 음성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다.

[오답풀이] ㉔ 어두 위치에서 일어난 모음축약만 장모음화를 수반하므로 ‘조심스러이→조심스레’와 같은 모음축약은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㉓ 준말 형성 과정에서 어떤 두 모음이 연결되게 되었을 때 모음충돌 회피의 일환으로 두 모음 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㉔ ‘보이다’는 용언이므로 ‘보이는→뵈는’은 용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어두 위치에서 일어난 모음축약이므로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㉕ ‘사이’→‘새’는 두 모음 ‘ㅏ’와 ‘ㅣ’가 결합하여 제 3의 모음인 ‘ㅕ’가 된 것으로, 모음축약에 해당하며 어두 위치에서 일어난 모음축약이므로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10. [출제의도] 모음 축약 현상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이→애’는 두 모음 ‘ㅏ’와 ‘ㅣ’가 결합하여 제 3의 모음인 ‘ㅕ’가 된 것으로, 모음축약에 의해 준말이 형성된 것이다.

[오답풀이] ㉑ ‘처음’→‘침’의 과정에서는 ‘ㅡ’ 탈락이 나타난다. ㉔ ‘어제그저께’→‘엊그저께’의 과정에서는 ‘ㄷ’ 탈락이 나타난다. ㉔ ‘마음’→‘맘’의 과정에서는 ‘ㅡ’ 탈락이 나타난다. ㉕ ‘가지가지’→‘갯가지’의 과정에서는 ‘ㅣ’ 탈락이 나타난다.

- [11~15] (가) 서정주 「추천사」, (나) 신동엽 「향아」, (다)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1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에서 화자는 그네를 타고 비상함으로써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초월적 이상세계로 가고자 한다. (나)에서 화자가 ‘향’이에게 가자고 하는 ‘우리들의 고향’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도 화자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폭설을 현대물질문명의 위선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㉑ (가)와 (나)에서 청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연민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㉓ (나)에서만 찾을 수 있다. ㉔ (다)에서만 찾을 수 있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의 화자는 ‘~떨어라’, ‘~떨어다오’라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간청하듯이 말하며 초월적 이상세계를 향한 자신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가자’, ‘~가자꾸나’ 등의 청유문을 사용하여 화자를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

자뿐 아니라 화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㉔ ‘회유’는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한다는 뜻인데 (가)에서 화자가 향단을 달래는 듯이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의 4연에서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등의 표현을 보면 청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나)에서 화자가 무언가 이익을 바라고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도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차 강한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밀다’라는 동사에 담긴 화자의 이상향을 향한 열망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배가 항구를 떠나는 완만한 수평이동에서 나중에는 파도가 치는 수평수직이동으로 전환되는 것 등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오답풀이] ㉔ 다양한 곳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한 곳으로 집중된다. ㉓ 공간적 배경은 그네에 한정되어 있다. ㉔ [A]에서 시상이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은 없다. ㉕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에서 ‘한계령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 ‘한계령(寒溪嶺)의 한계(限界)’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고립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화자는 그런 고립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㉔와 절망감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화자는 그네를 타고 날아오름으로써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자 했다. 그러나 그네에 매달려 있는 이상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㉔ ‘눈동자’는 자신이 헛된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 도록하는 존재이다. ㉓ ‘넋물이 굶이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 ㉕ 화자는 헬리콥터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거부하고 있다. 헬리콥터가 살인의 도구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동화의 나라’ 즉 폭설에 묶이고 싶다는 것은 폭설을 축복으로 보는 (가)의 전체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동화의 나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이어지는 ‘뭉였으면’까지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㉔ 자동차들은 법석을 떨면서 ‘제 구멍’(현실적 삶이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16~19] (인문) 이창후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기술』

16. [출제의도] 글의 중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6번 문항 해설 참고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7번 문항 해설 참고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8번 문항 해설 참고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9번 문항 해설 참고

[20~22] (과학) 모리타 유코 『인체가 색깔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3번 문항 해설 참고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4번 문항 해설 참고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5번 문항 해설 참고

[23~27] (가) 이황 「만보(晩步)」, (나) 신계영 「탄로가(嘆老歌)」, (다) 유경환, 「돌충계」

23. [출제의도] 세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에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나)에서는 백발이 된 자신의 처지를, (다)에서는 인생의 계단을 올라오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4. [출제의도] 핵심 시어의 의미를 전기적 사실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를 통해서 작가가 자연을 벗하면서 학문 수양에 전념할 수 있는 삶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어지러이 놓인 책을 정리하면서 ‘옛 성현’이나 ‘학문적 이상’을 추구했던 자신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 풍경을 보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모습에서 ‘회포’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 화자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학문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을 ‘회포’라는 시어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작가가 학문의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③ 벼슬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는 설명에서 작가가 학문을 통해 높은 벼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작가가 학문을 통해서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학문을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뿐, 자연을 벗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데에서 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출제의도]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 3수에서 화자는 백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백발을 부정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제 1수의 ‘아이 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 1수의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옷을 줄 어이 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 2수의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 2수의 ‘마음이 젊었더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글쓴이는 계단을 보면서 인생의 계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인생의 계단을 올라갈 때는 먼저 오르려고 남들을 밀쳐내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았나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가 계단을 오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③의 생각은 글쓴이의 생각에 따른 인생의 계단이 갖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27. [출제의도] 시구나 문구에 담겨 있는 화자의 심리를 추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에서는 어릴 적 즐거운 일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아쉬워하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고, ㉡에서는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만족감을 엿볼 수 있다.

[28~31]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28. [출제의도]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0번 문항 해설 참고

29. [출제의도] 대화를 비교함으로써 이야기의 진행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1번 문항 해설 참고

3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작중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2번 문항 해설 참고

31.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하게 속담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3번 문항 해설 참고

[32~34] (사회) 김도균 외 『법치주의의 기초』

32.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 단락은 근대 법치주의가 어떤 문제 의식에서 탄생했는지 설명하는 단락이다. (나) 단락은 초창기 법치주의가 삼권분립을 기초로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했다는 내용이다. (라) 단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이다. (마) 단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락으로서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각 법치주의 특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문에 따르면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법의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만 지켜진다면 그 사회는 이미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위해 어떤 내용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삼권 분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A국을 두고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절차적 합법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법의 내용이나 실질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넌움’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⑤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갑’이 이웃인 ‘을’의 위험한

상황을 외면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B국의 법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4.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단서는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즉, (마)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형식적 법치주의자의 주장이다. ③은 관습법을 중시하는 태도로 형식적 법치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④는 형식적 법치주의자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극복 방안이 되기 어렵다. ⑤는 법치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35~37] (예술) 스테판 샤프 『영화 구조의 미학』

35.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 문단의 인용문에서 스테판 샤프의 영화관이 언급되고 있다.

3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문단에서 다중 번각의 특징으로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 불규칙 배열, 단일한 공간에서의 대상의 역동적이고 입체적 연출, 클로즈업 샷 등이 언급되고 있다.
【오답풀이】 ㄱ과 ㄴ은 모화면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분리 병치의 특징으로 피사체를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피사체의 각각의 정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관객은 두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다중 번각의 특징으로 긴 장면에서 관객의 지루함을 줄이는 것과 피사체를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느낄게 하는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모화면의 특징으로 사건의 부드러운 진행과 재설정의 목적 그리고 다른 화면과의 적절한 배열을 통한 다양한 효과 연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 ㉡, ㉢는 이 영화에서의 모화면으로, ㉣, ㉤는 분리 병치, ㉥~㉧는 다중 번각으로 제시되고 있다.

[38~41] 황석영 『삼포 가는 길』

3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36번 문항 해설 참고

39.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37번 문항 해설 참고

40.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 시점(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38번 문항 해설 참고

41. [출제의도] 작품에서 드러난 인물 간의 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39번 문항 해설 참고

[42~45] (인문) 김용규 『생략삼단논법의 효과』

42. [출제의도] 설명문을 읽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생략삼단논법에서는 전제가 ‘확실한 지표’이거나 ‘일

반적 통념’일 때 생략할 수 있다. 확실한 지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식이며, 일반적 통념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으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생략하면 누구나 아는 진부한 내용을 반복하는 실증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생략삼단논법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표현을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논증 과정에서 모순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의 광고는 [전제 2]가 생략되고 [전제 1]과 [결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생략된 전제를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으로 생각한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전제 2]를 생략한 이유는 ‘○○○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라는 전제를 마치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며 [전제 2]를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로 여기게 된다. 즉,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강조하고 싶은 ‘○○○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라는 [전제 2]를 숨기는 방법으로 생략삼단논법을 교묘히 역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은 누구나 아는 진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광고에서 [전제 2]는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생략된 전제일 뿐이다. 또한 [전제 2] 대신 [전제 1]을 생략했다고 하여 [결론]이 확실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①~④에서 생략된 전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적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은 절대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⑤에서 생략된 전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확실한 지표’가 된다.

45. [출제의도] 문장 속에 쓰인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의 ‘알다’는 ‘생각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반면, ⑤의 ‘직시(直視)’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바로 봄’을 의미하므로 ㉔의 ‘알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오답풀이] ①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에 대해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